

불자 세상보기



김형중
동대부여중 교법사
문학박사

학교 폭력과 학생 자살이 매년 지속돼
민생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.

지난해 12월 대구서 학교폭력에 시달리
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 폭력의
방식과 정도가 너무나 잔혹해 국민들에게
커다란 충격을 주었다. 대통령까지 나서서
학교 폭력을 짚는 시일 안에 근절시키라고
했지만, 올해 4월에 경북 영주에서 중학생
이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또다시
발생해서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.

<대지도론>에서 "설령 세계에 가득 찬
보배라도 생명과 바꿀만한 것은 없다"고
했다.

무엇이 우리 학생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
여 자살이란 최악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
일까?

먼저 교육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
점검해 해 볼 일이다. 국영수 위주의 무한
입시경쟁 교육에서 학생들이 질식(窒息)하
고 있다. 가정환경이 빈곤하고 학업성적이
부진한 학생에게는 학교가 더 이상 희망이

되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열등감을
심어주는 고통의 공간이 될 뿐이다. 이러한
교육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라
는 해악은 학생들을 더욱 커다란 고통 속
으로 몰아넣는다.

게다가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에게 교
편(敎鞭)을 빼앗아버리고 입과 혀바닥으로
만 문제 학생을 지도하라고 하니 될 턱이
없다.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을 놓고 정작
교육과 학자지원부와 시교육청은 엇박자만
내고 교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
르고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있다. 이런 상
황에서는 부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교화
하려고 해도 힘들 것이다.

부처님께서 <잡아함경>에서 '폭력과 폭
언을 하는 사람이 받는 죄'에 대해 다음
과 같이 말씀하셨다.

"욕쟁이 바라드바자는 부처님을 보고 추
악한 말로 욕하면서 흠을 쥐어 부처님께
끼얏었다. 그때 역풍이 일어 그 흠이 도리
어 바라드바자의 몸에 끼얏었다. 곧바로 부
처님께서 계승으로 말씀했다.

사람이 성내거나 원한 없는데
그를 보고 욕하고 꾸짖더라도
정정해 앙심 먹는 때가 없으면
그 허물 도리어 제게 돌아가나니

마치 흠을 그에게 끼얏더라도
역풍이 도로 그를 더럽히는 것 같네."

상대방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휘두르는
사람은 결국 자신이 그 괴롭힘을 당한다는
인과의 말씀이다.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상
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법이다. 어쩌면 가
해자가 먼저 착한 심성이 망가져서 정신적
으로 황폐해져 있을 것이다. 어리석은 사람
은 남을 괴롭힘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스트
레스를 푼다. 이것이 범죄행위인 줄을 모른
다. 장난으로 착각한다. 가해자가 장난으로
던진 돌맹이에 맞아 개구리의 머리통이 깨
진다. 피해자는 그것이 심각하여 자살까지
이르게 되는 것이다.

폭력은 범죄 행위이다. 흔히 일진으로 불
리는 교내 폭력단체는 범죄조직이다. 법에
의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교화해야 한다. 학
교에서 선도하는 차원이 아니다. 심각한 폭
력사건에 대해서도 학생이라는 미명고 관
용으로 덮어버리는 지도는, 문제 학생이 폭
력과 범죄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함으로
써,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
폭력배나 범죄자가 되게 한다. 어릴 때부터
작은 폭력이라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
죄행위임을 인식시켜줘야 한다. 상대방에
게 괴롭히는 피해를 주었을 때는 자신도
응당의 대가를 치르어야 함을 교육시켜야

한다.
학생들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
는 즉각 학교장이나 학교담당 경찰에게 신
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즉각적 해결
이 되어야 하고, 가해학생은 지속적으로 학
교에서 관리되어야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
있다.

학교 담임이나 상담교사의 차원에서 해
결할 사건은 지극히 장난 차원에서 나타나
는 미미한 사건 정도이다. 내 자녀가 학교
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금
품을 갈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
해봐라. 이것은 용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
니다. 남의 자식이라고 학교 폭력에 대해여
지나친 관용적 태도만을 갖는 것은 전혀
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. 학교 폭
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에게 인성
교육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
성하고 소통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 필
요하다.

명상교육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이루고,
108참회법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
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.
생명을 존중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이웃을
사랑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. 아울러 폭력
은 일벌백계하여 용서될 수 없는 범죄이고
죄악이라는 인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전체
되어야 한다.

명상교육 확대 학교 폭력 근절하자

社說

절집 인문학 열풍 더 세계

불광사 불광연구원 조계사 등에서
시작한 인문학강좌에 인파가 물리고 있
다고 한다.

4월 11일 불광연구원 불 강좌에서
이도훈 한양대 교수의 '동양과 서양
의 생각의 차이' 주제 강좌에서는 중
관 사성제 유식 등 불교 사상을 하이
데거의 존재론, 자크라캉의 욕망이론
등 서양철학에 접목했다. 주제도 신선
하지만 등록수강생이 80여 명에 달하
는 성황을 이뤘다는 소식이다.

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. 물
질만능주의 시대. 실용학문에 치우쳤
던 우리 사회가 돈보다 사람을 찾고,
인문학으로 눈 돌린 지 오래이다. 늦
었지만 불교계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
있다.

불교는 인간의 본성을 찾는 종교이
다. 석가모니 부처가 치열하게 수도했

던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탈, 생사의
윤회를 벗어나 즉 인간 본연의 문제였
다. 불교가 종교이면서 철학인 이유이
다. 불교가 있는 그대로 인문학인 까
닭이다. 불교계에 불고 있는 인문학
열풍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다. 그
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인문학 열
풍이 주목받는 것은 인문학이라는 방
편이 곧 불교의 대중화로 연결되기 때
문이다.

인문학은 불교사상을 시대 언어로
재구성에 대중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
체이다. 불교와 접목한 인문학 강좌를
통해 대중은 보다 쉽게 불교를 이해할
수 있고,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.
불교에는 원융회통의 가르침이 있다.

사찰마다 인문학 바람을 타고 비불
자들 까지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
이지 않길 바란다.

사회참여 앞서 종교인 본분을

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유교 민
족종교 등 7대종교지도자들이 공주
마곡사·동학사 등 사찰을 방문했다.

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초청
으로 4월 16~17일 열린 행사는 종교
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의 계기를
만들고자 마련된 순례의 일환이다.

특히, 가톨릭 김희중 대주교가 한
학인스님의 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
견해를 물음에 답한 내용은 종교인으
로써의 본분이 무엇인지 일깨운다.

김희중 대주교는 "종교인이 사회참
여에 힘쓰려면 일반 사회인이나 무엇
이 다른가? 사회참여도 좋지만 종교
교류의 본성을 망각해서는 안된다"고
말했다. 종교는 성직자 중심이 아닌
대중과 부처(혹은 절대자)를 있는 것
이 중요하다. 중생을 떠난 종교는 존

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.
1962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
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잘 깨달아야한
다는 입장에서 사제의 사회참여를 활
발히 진행해 왔다. 김희중 대주교는
수도원 속에 갇혔던 가톨릭에서 벗어
났지만 여전히 불교의 선방 같은 봉쇄
수도원을 찾는 성직자의 발걸음은 줄
지 않고 있다고 했다.

김희중 대주교는 "스마트폰 등 정보
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 일깨운다.
김희중 대주교는 "종교인이 사회참
여에 힘쓰려면 일반 사회인이나 무엇
이 다른가? 사회참여도 좋지만 종교
교류의 본성을 망각해서는 안된다"고
말했다. 종교는 성직자 중심이 아닌
대중과 부처(혹은 절대자)를 있는 것
이 중요하다. 중생을 떠난 종교는 존

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.
1962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
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잘 깨달아야한
다는 입장에서 사제의 사회참여를 활
발히 진행해 왔다. 김희중 대주교는
수도원 속에 갇혔던 가톨릭에서 벗어
났지만 여전히 불교의 선방 같은 봉쇄
수도원을 찾는 성직자의 발걸음은 줄
지 않고 있다고 했다.

김희중 대주교는 "스마트폰 등 정보
로써의 본분이 무엇인지 일깨운다.
김희중 대주교는 "종교인이 사회참
여에 힘쓰려면 일반 사회인이나 무엇
이 다른가? 사회참여도 좋지만 종교
교류의 본성을 망각해서는 안된다"고
말했다. 종교는 성직자 중심이 아닌
대중과 부처(혹은 절대자)를 있는 것
이 중요하다. 중생을 떠난 종교는 존

사부대중 칼럼



이중남
등인선원
한국YBA 정책실장

대한민국의 초대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
너는 오스트리아 태생이다. 그녀는 1934년
에 국제연방 회의차 제네바를 방문한 이승
만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주변의 만류에도
불구하고 결혼했다. 이승만의 지인들은 오
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(호주)를 혼동
하고서 그녀를 '호주녀'로 불렀다. 프란
체스카 도너는 격동의 한국사를 이승만과
함께했고, 하와이 망명지에서 남편이 죽은
뒤에는 분가와 다툼없는 이화장으로 돌아
와 여생을 보내다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
혔다. 쪽진 머리에 한복을 즐겨 입던 파란
눈의 국모(國母)는 한국을 각별히 사랑했
다고 한다. 어느 날 오스트리아 기자가 다
가와 "당신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죠. 저도
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."라고 말을 걸자

"어쩌다 보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을 뿐
나는 한국 사람입니다."라고 답했다는 일
화가 전한다.

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모든 개인이
법 앞에 평등하고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장
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것이 서구세
계 주류의 신념이다.

이러한 신념을 반박한 정체성(identity)
담론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 여권운
동이 등장하던 때 부상하기 시작했다. 사람
은 고립된 추상적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
일정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의 구성원으로
서 존재한다는 점, 다수자가 소수자를 체계
적으로 억압하는 질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사
회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이들은 지
적했다. 특히 미국의 경우, 건국 이래 모든
인류를 포용한다는 용광로 이데올로기를
자랑해 왔지만 유독 두 종류의 사람들, 즉
미국 원주민과 흑인 노예의 후손들에 대해
서만큼은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극단적인
배제정책에 관해 반성온커녕 의식조차 못
하고 있던 현실은 이들에 의해 효과적으로
폭로되었다.

사회가 다수자와 소수자라는 두 집단의
대립으로 구성된다 할 때, 만일 자유로운
선택권이 주어진다던 굳이 소수자의 정체
성을 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. 한국
의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관련된 심층면접
자료를 보면 이런 사실은 뚜렷이 드러난다.
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한
국인으로 생각하며,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
'외국인으로 오해' 할까봐 대단히 신경을
쓴다. 정체성 내지 집단일체감은 생활경험
속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규정과 외부의 객
관적인 규정이 교섭하는 가운데 형성되고
변동하는 개인적·사회적 심리상태다. 따라
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어떤 특정한 정
체성으로 규정하더라도 남들이 전혀 그것
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은 획득되지
않는다. 서두의 프란체스카 여사의 예로 돌
아가 보자. 그녀는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
말했지만, 당시 한국인들 가운데 그녀를 한
국인으로 생각하는 이가 몇이나 되었을까.
거의 없었을 것이다.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
어느 나라 사람이었는가?

요즘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

자가 된 '완득이 엄마' 이자스민을 놓고 말
이 많다. 그녀가 과연 국회의원 직무를 불
능력이 되는가 하는 전문성 문제부터 경력
에 허위·과장이 심하다는 정직성 의혹에
이르기까지 의논이 분분하다. 이런 공론상
의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처럼 기성정당의
기술이 약하고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지는
나라일수록 순기능이 크다. 사실 나는 이자
스민을 모르고, 두둔할 마음도 없다. 그렇
지만 그 비난 가운데 그녀를 외국인인 것
처럼 전제하거나 그녀가 상징하는 다문화
가정이 한국인의 가정이 아닌 것처럼 취급
하며 비난을 쏟는 견해가 섞여있는 점은
우려를 자아낸다.

나는 한국을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데
한국인이고, 이것이 무슨 과분한 자격이라
고 생각하지 않는다. 그런데 심사숙고 끝에
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이민까지 온
15만에 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
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말인가? 남편과 자
녀들은 한국 사람인데 정작 여성 자신은
한국 사람이 아니라면, 그녀들은 대체 어느
나라 사람이란 말인가?

당신은 진정 한국 사람입니까

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·현대화·세계화

회장 : 노대행 발행·편집인 : 박혜월 인쇄인 : 최낙관

110-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-21 수송빌딩 대표전화(02)2004-8200/대표팩스(02)737-0697

편집국 02)2004-8234-55
FAX (02)737-0698
광고국 02)2004-8213-7
FAX (02)737-0696

이시울 현물닷컴 www.hyunbul.com
심시간 뉴스 현물뉴스 www.hyunbulnews.com
쇼핑몰 현물닷컴 www.hyunbulshop.com

현대불교 대구지사 : (053)768-8008
광주전남지사 : (062)384-3009
전북지사 : (063)910-8977

경남남부지사 : (055)746-9778
영주지사 : (054)634-3429
부산지사 : (051)632-0064

구독신청·배달안내 (02)2004-8212 / 구독료 : 1개월 5천원·영구 62만5천원
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: 다-3379 /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행 요강을 준수한다

"운명"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!!
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○오희규실화소설
운명
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%
신국문 352쪽
각권정가 10,000원
전집구입시 15,000원 후불제!
(062)266-6693
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.
입금계좌:(예금주:오희규)
농협 601175-52-016521
연락처(우편번호 500-500)
광주광역시 북구 청곡(민월)동 374-2번지

강화고려사
매주 토요일 철야정진
시 간 : 21:00 ~ 03:30
내 용 : 법화경 전품 독송
동참금 : 성의껏
차량운행 : 조계사암 매주 토요일 저녁7시
(차량기사 : 010-4941-5713 예약 필수)
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
1차 백일기도 (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제 봉행)
기 간 : 2012년 3월 25일 ~ 7월 2일
내 용 :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
② 법화경 사경
③ 염불 ④ 108배
(동참 불자님은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)
동참금 : 10만원 (전화접수 가능)
전 화 : 032) 932-3525 / 010-5282-3550
*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, 개금불사
동참자(접수중)는 천일동안 축원
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
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-4

사찰(급)안내
위 치 : 경북 포항시(서포항 IC 10거리)
2차선 갖길 호조진
사찰 전시관 (2층 240평) 대웅전, 용왕, 산신, 지장전,
종각, 대중공양실, 판매장 총 2,500평
경주, 대구, 영천 30분거리
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.
특 징 : 눈을 흘리시는 약사여래불, 국내최대 관음여기를
안고 계신 목불 (약 250년), 3m 40cm
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
(목불위주 전시)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
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(평균적 : 30만원)
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등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
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
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.
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.
총 2,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,
대웅전, 지장전, 용왕, 산신, 대중공양실, 종각,
당 2,500평 무료 제공함.
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,000여명
가액 :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
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.
연락처 : 010-4504-0174